

■ 괴운(槐雲) 칼럼



사마천 사기로 배우는 노후 인생조언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오늘은 2천 년을 넘어 지금까지 살아남은 단 한 권의 인생 기록인 사마천 『사기(史記)』를 통해 노후 세대가 꼭 새겨야 할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중국 한무제(漢武帝) 때 태사령을 지낸 사마천(司馬遷, BC 145- BC 86)은 부친의 유언을 받들어 궁형을 당하면서까지 죽지 않고 역사의 서술로 이어져 불멸의 저서 <사기>를 남겼습니다. 사마천이 『사기』 집필 중 궁형을 당하며, 자신의 처지를 아홉 마리의 소 중 털 하나(九牛一毛)에 비유하여 “설령 내가 복종해 죽임을 당할지라도 아홉 마리 소에서 한 개의 털을 잃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삶과 죽음을 오가는 고통 속에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130여 권, 50만 자에 이르는 사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천 사기 속 인물들의 실제 인생을 바탕으로 노후에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인생 조언 7가지, 이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사람이 늙어가면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억울함, 자식 문제, 인간관계, 돈, 외로움, 후회, 그리고 죽음” 문제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1. 사람의 가치는 성공이 아니라 끝에서 드러납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는 노후의 인생 점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의 태도로 평가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가 내 인생 마지막 문장을 쓰는 일입니다.

2. 억울함에 묶이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억울한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붙들고 살면 노후의 하루하루가 모두 원망으로 바뀝니다. 억울함은 풀려고 애쓰지 말고, 의미로 바꿔 쓰는 순간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 노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 하나 잘못 붙인 관계입니다. 돈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 험담을 즐기는 사람, 책임을 넘기는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노후의 평온은 많은 사람보다, 조용한 몇 사람으로 지켜집니다.

4. 돈은 쌓아도 되지만, 기대지는 마십시오. 돈은 불안을 줄이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인생의 기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사람은 평생 불안해집니다. 돈은 모셔야 할 주인이 아니라, 써야 할 하인입니다.

5. 늙어서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나이는 몸을 늙게 하지만, 배움은 사람을 끝까지 살게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워?”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마음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노후의 배움은 경쟁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힘입니다.

6. 자식에게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마십시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인생을 대신 살아줄 존재는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내려갔다”는 순간, 삶은 자식의 눈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게 하고,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내가 살아야 합니다.

7.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삶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가 선명해지고, 말이 조신스러워지고, 욕심이 가벼워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처럼 말하고, 지금처럼 관계 맺고, 지금처럼 살 것인지 자신에게 묻는 순간, 하루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상 7가지는 사마천이 2천 년 전 수많은 인간의 실패와 몰락, 그리고 극소수의 위대한 마무리를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 남긴 노후를 지키는 인생의 울타리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생이 가장 깊어지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장은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존엄이 될 수도 있으며,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마천은 명예도, 지위도, 몸도 모두 잃고 난 뒤에 비로소 사람의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기록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지금 나에게,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글이 독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조용한 등불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화식열전(貨殖列傳)〉
재물에는 일정한 주인이 없다



권순공(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사마천(司馬遷, B.C. 145경~B.C. 85경)의 저 유명한 『사기(史記)』를 보면, 특이하게도 춘추시대부터 한나라 초기까지 돈을 번 사람들의 사연을 다룬 <화식열전(貨殖列傳)>이 있다. ‘화(貨)’는 재물을 의미하고, ‘식(殖)’은 불어낸다는 뜻으로 재산을 늘리는 방법을 말하니, 곧 돈을 번 사람들의 얘기라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가 필요했을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하가 복적이는 것은 모두 이익을 위해 모여드는 것이고, 천하가 어수선한 것은 모두 이익을 위해 떠나는 것이다”고 한다. 그 이익을 취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물건과 돈을 흐르는 물처럼 원활하게 유통 시켜야

월(越)나라 범려(范蠡, B.C. 517~?)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월왕인 구천(句踐)을 위해 오(吳)왕 부차(夫差)에게 갖은 수모를 당한 뒤에 월나라로 돌아와 “쓸개를 맛보게 하며[嘗膽]” 복수를 다짐시켰던 인물이다. 결국 오왕에게 미녀 서시(西施)를 바치고 주세에 빠지게 하여 오나라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복수를 완성했다.

앞서 범려는 월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 물자의 유통을 강요하면서 월왕에게 “값이 비싸면 오물을 배설하듯이 내다 팔고, 값이 싸면 구슬을 손에 넣듯이 사들여야 합니다. 물건과 돈은 흐르는 물처럼 원활하게 유통시켜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세에 따른 물자의 조달로 10년이 되니 나라를 부강해지고 병사들은 웅맹하게 되어 오나라를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룬 뒤 범려는 출연 모든 관직을 다 버리고 잠적해 버렸다. “계연(計然)의 일곱 계책 중에서 월나라는 다섯 가지를 써서 뜻을 이루었다. 나라에서는 이미 써보았으니, 나는 이것을 집에서 써보겠다.”고 하며 일엽편주를 타고 강호로 떠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제(齊)나라로 가서 자신을 ‘치이자피(鶻夷子皮)’라 부르고 재산을 모았다. ‘치이자피’라는 말은, 오나라의 공신이었으나 결국 모함에 의해 죽음을 당한 오자서(伍子胥)의 시신이 말가죽 부대에 담겨 물에 던져진 데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한다. 거부가 된 범려의 재능을 알아본 제나라 사람들이 그를 재상으로 삼으려 하자, 범려는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제나라를 떠나 도(陶, 현재의 산둥성 허쩌시 디타오현) 지역으로 갔다.

거기서 주공(朱公)이라 불렀다.

도(陶)는 천하의 중심으로 사방 여러 나라로 물자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여서 물자를 쌓아두었다가 시세의 흐름을 보아 내다 팔았다. 말하자면 사고팔 때를 정확히 읽어 19년 동안 세 차례나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런데 그것을 가난한 친구들과 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른바 “부유하면 그 덕을 즐겨 행한다.”는 것으로, 오늘날로 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에 해당하는 처신이다. ‘나눔의 미덕’을 실천했던 셈이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회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시세 변동에 따라 민첩하게 사고 팔아야

백규(白圭)는 전국시대 낙양 사람인데 시세의 변동을 살피기를 좋아했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버리면 자신이 사들이고, 사람들이 사들일 때는 자신이 팔아넘겼다.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이고 실과 옷감을 팔았으며, 흉년이 들면 비단과 솜을 사들이고 식량을 내다 팔았다. 백규는 풍년과 흉년이 순환하는 하늘의 이치를 살펴 사고팔아서 해마다 물건을 사재기하는 것이 배로 늘어났다. 돈을 불리려면 값싼 곡식을 사들이고 수확을 늘리려면 좋은 종자를 썼다. 시기를 보아 사고파는 데는 마치 사나운 짐승이나 새처럼 재빨랐다. 말하자면 시세를 보아 물건을 살 때 사서 비쌀 때 팔았던 셈이다.

백규는 자신의 경영 방식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산을 운영할 때, 마치 이윤(李尹)과 여상(呂尚)이 계책을 꾀하고, 손자(孫子)와 오기(吳起)가 군사를 쓰고, 상앙(商鞅)이 법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한다. 그 까닭에 임기응변하는 지혜가 없거나 일을 결단하는 용기가 없거나 주고 받는 어짚이 없거나 지킬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사람이면 내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해도 끝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 말하자면 경영에 있어서 시세에 따라 임기응변하는 지혜와 투자에 있어서의 결단력과 상거래에서의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富)에는 정해진 사업이 없다

사마천은 이처럼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았는가를 얘기한다. 철을 제련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노예들을 잘 다루어서 그들을 활용하여 생선과 소금을 교역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다. 금은보화 대신 곡식을 중히 여겨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고,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농사와 목축에 힘을 써서 부유해진 사람도 있다. 돈놀이로 하여 10배나 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불린 사람도 있다.

이들은 법에 어긋나는 나쁜 짓을 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모두 사물의 이치를 헤아려 행동하고 시세 변화를 살펴 그 이익을 얻고, 상업으로 재물을 쌓고 농업으로 부를



지켰다 한다. 대체로 아껴 쓰고 부지런한 것은 돈을 모으는 기본이지만 부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기이한 기회를 잘 활용했다. 농사를 잘 지어서 부호가 되기도 했고, 도박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행상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술장사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칼을 가는 기술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양(羊)의 위를 삶아 말려 팔아 부자가 된 사람도 있으며, 말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부자가 된 경우도 있다.

다만 모두 성실하게 한 가지 일에 노력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일종의 전문가가 되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를 터득하게 된다는 말이다. 세상만사가 다 그러니 장사나 기업인들 다르겠는가? 해서 부유해지는 데는 정해진 사업이 없고, 재물에는 일정한 주인이 없다고 한다. 돈이야 물처럼 흘러 유통되는 것인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곳으로 모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왓장 부서지듯 흩어지는 것이다.

요즘 주식열풍으로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널뛰기를 한다. 사마천의 말처럼 시세를 보아 사고팔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획득된 부를 통해 덕을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못은 깊어야 고기가 있고, 산은 깊어야 짐승이 오가며, 사람은 부유해야 인의를 따르기 때문이라라.

2026 경산시 안동권씨 종친회 단합 복다름 행사 가제



경산시 안동권씨 종친회(회장 권오흥 북야파 35세 권치과 원장)는 7월 22일 시내 삼계탕집에서 종원 30여 명이 참석하여 2026년 종친회 복다름 행사를 했다.

경산시 종친회 복다름 행사는 73년 창립총회 이후 매년 복중에 실시하는 행사로 권영성 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권오흥 회장의 인사로 시작했다. 파끈한 삼계탕과 음료, 떡과 수박을 나눠 먹으며 족친 간에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며 우의를 다지는 귀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권오석 고문은 “특별히 더운 찜통더위가 한창인 삼복더위에 족친들의 건강을 빌며, 오늘 마련한 삼계탕으로 기운을 얻어 더욱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오흥 회장은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구의 열대화로 주·야간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편안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기자뉴스 권성욱 부장

서울지역종친회 복다림 행사

회원 여러분!

무더위가 30도 이상 오락가락하는 삼복지제에 회원님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금이나마 챙겨볼까 하여 복다림 행사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 ♣ 일 시 : 2026년 8월 9일 일요일 11시
- ♣ 장 소 : 동대문구 이문동 그집(혜숙이네)
- ♣ 교 통 : 전철 1호선 외대앞역 1번 출구 외대.경희대 후문앞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6년 8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64차 정기산행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64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일 시 : 2026년 8월 16일(일) 10시(시간 엄수)
- ♣ 집합장소 : 1.7호선 도봉산역 1번 출구 길 건너 만남의 광장
- ♣ 산 행 지 : 도봉산
- ♣정기총회 장소: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 장비

- 회 장 권경탁: 010-3796-4047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중우 010-5418-4299

2026년 8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경탁